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김연신
명지대학교

최한나*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본 연구는 Schwartz(1992)가 제시한 보편적 가치이론을 국내 대학생들에게 적용하여 그 구조와 내용이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적용 타당함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58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chwartz가(1994) 개발한 가치 설문지인 SVS(Schwartz Value Survey : SVS)들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들의 가치 항목들에 대한 중요도 평정을 실시하고, 유사성 구조 분석(similarity structure analysis : SS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Schwartz의 가치이론에서 제시한 10개의 가치영역들 중에서 8개가 독립된 가치영역으로 확인되었으며, 두 개의 가치영역('박애'와 '동조')은 통합되어 하나의 가치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박애'와 '전통'의 순서와 '성취'와 '권력'의 가치영역은 Schwartz의 이론에서 제시된 바와 달리 가치영역의 순서가 바뀌었다. 또한 57개의 가치항목들 중에서 6개의 가치항목이 이론에서 제시된 것과는 다른 영역에 위치하였다. 본 연구 결과 Schwartz의 이론에서 제시된 가치구조와 내용은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대체적으로 적용 가능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구조와 내용의 부분적 차이에 대해서는 문화적 맥락에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Schwartz의 가치이론, 유사성 구조 분석, 가치구조, 가치내용

개인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타문화간 비교를 위한 사회과학 연구뿐 아니라 개인의 태도 및 행동의 이해가 중요해짐에 따라 소비자행동과 마케팅 분야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아 왔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의 추구가치는 시장 세분화 및 촉진과 같은 마케팅전략을 위한 기초로써 중요하게 사용되어져 왔으며 특정 소비 행위 및 선택에 나타난 차이들을 설명해주는 주요변인으로도 관심을 받아 왔다. 이러한 관심은 가치가 개성

보다 행동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태도보다 더 중심적이고 덜 다양하며 행위를 일으키는 동기와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또한 개인의 추구 가치는 개인의 삶을 주도하는 원칙의 역할을 수행하며, 중요성에 있어서 다양한 이상적 목표로써 정의되었다(Kluckhohn, 1951; Rokeach, 1973; Schwartz, 1992). 가치는 사람들이 상황을 초월하여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기

* 이 논문은 2008년도 명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최한나, (405-23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14-6번지,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가족상담학과, 전화 : (032) 433-1996, E-mail : chn@hyo.ac.kr

준의 특성을 지닌다(Schwartz & Bilsky, 1990). 따라서 개인의 다양한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 예측하기 위해 가치의 이해는 유용하며, 더 나아가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하다(김철민, 1999). 특히 가치는 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 적어도 어느 정도, 공유되기 때문에 특정 문화권 안에 심리적 유사성과 타문화간 심리적 차이를 나타내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행해지는 비교문화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개인이 속한 문화나 사회, 국가에 상관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해왔으며(Rokeach, 1973), 이러한 가정에 따라 일련의 보편적 가치 차원들을 밝히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예를 들어, Hofstede, 1980; Kluckhohn & Strodtbeck, 1961; Parsons & Shils, 1951; Rokeach, 1973).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기존의 이론들은 가치의 실제내용을 분류하려고 시도하였으나(Kluckhohn & Strodtbeck, 1961) 폭넓은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Schwartz, 1994).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치에 대한 연구들은 개념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조작적 수준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 후 Rokeach(1973)에 의해 가치측정은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는 가치개념을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와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로 구분하여 각각 18개의 문항들을 개발하여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진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그의 측정도구는 가치관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왔으며, 국내에서도 Rokeach의 가치측정 도구는 번안되어 몇몇 연구들에서 사용되어 왔다(장동환, 김교현, 1983; 한덕용, 탁진국, 1993). 그러나 Rokeach(1973)가 개발한 도구적 가치와 궁극적 가치사이의 이론적 구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36개의 가치 목록들에 대한 포괄성과 대표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Kahle, Beatty, & Homer, 1986). Rokeach(1973)의 가치 측정도구 연구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가치도구의 내용을 확대하면서 측정도구들을 개발하였으나(Braithwaite & Law, 1985; Crosby, Bitner, & Gill, 1990; Hofstede, 1980; Maloney & Katz, 1976), 널리 이용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측정도구들은 가치를 태도 및 행동의 기초로 이용하는 연구들에 제한적으로 사

용되어져 왔고 이러한 제한적 적용의 원인은 가치 항목이 많으며, 가치의 구조를 밝히는 일관적인 이론이 부재하고, 다양한 표본들로부터 신뢰성 있는 가치점수를 산출하는 측정도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Rokeach(1973)의 가치 이론 이후 Schwartz(1992, 1994)는 Rokeach의 가치 연구에 기반을 두었지만 개인들의 보편적 가치내용과 구조에 관한 체계적 이론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가치이론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Schwartz는 Rokeach의 도구적 및 궁극적 가치내용들을 추가, 보완함으로써 측정도구를 확대하였고, Likert유형의 척도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다차원척도법의 일종인 Smallest Space Analysis(SSA)로 분석하여 기존의 단순한 1차원적 접근방식을 다차원적인 분석방법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의 이론은 기존의 가치 연구들의 가치 측정 및 분석 수준을 문화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으로 바꾸었으며, 다양한 문화권에 모두 적용 가능한 보편적 가치 유형들의 구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Schwartz와 Bilsky(1987, 1990)는 개발된 이론에 근거하여 대규모 가치연구를 시도하였고 여러 국가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로부터 도출된 각 국가별 가치관 구조들을 다시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의 가치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측면을 확인하고,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는 가치내용들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사람들이 지닌 가치의 보편적 내용 및 구조이론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가치를 (a) 이상적인 최종 상태 또는 행동에 관한, (b) 구체적인 상황들을 초월하는, (c) 행동과 사건들의 선택 또는 평가를 위한 핵심으로 작용하고, (d)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라 서열이 정해질 수 있는 개념 또는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들은 연구를 통해 자유, 성공, 쾌락과 같은 특정 추구가치들이 내재적 동기에 의해 구분되고 정의되는 유형들에 따라 7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점차 10개의 영역으로 확대하였다(Schwartz & Bilsky, 1987, 1990; Schwartz, 1990; Schwartz & Sagiv, 1995). 이들이 제시한 가치이론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특정 영역에 포함되는 다수의 가치항목들로 이루어진 복수항목지수(multi-item indexes)에 의해 측정된 각 가치유형의 중요성은 한 개의 가치항목으로 측정된 가치 중요성보다 더 신뢰성이 높으며, 더 많은 설명력을 지니고 의미가 더 분

표 1. Schwartz의 이론에서 제시한 가치유형과 가치항목

가치유형	정 의	대표적 가치항목
1. 안전(Security)	사회, 본인, 그리고 본인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안전, 조화, 그리고 안정	가족의 안전, 나라의 안전, 사회질서, 소속감, 건강, 청결한, 호의에 보답
2. 동조(Conformity)	사회적 기대와 규범을 위반하고 타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성향, 및 충동의 자제	순종하는, 부모와 연장자들을 공경하는, 공손, 자기수양
3. 전통(Tradition)	전통문화 또는 종교가 제시하는 관습 및 아이디어의 수락, 공경, 그리고 이행	전통에 대한 공경, 중립적인, 겸손한, 인생에서 자신의 몫을 받아들이는, 헌신적인
4. 박애(Benevolence)	가까운 사람들의 복지(welfare)보존과 향상	영적인 삶, 의미있는 삶, 성숙한 사랑, 참된 우정, 충성스러운, 용서하는, 도움이 되는, 정직한, 책임감 있는
5. 보편주의(Universalism)	인류와 자연의 복지에 대한 바른 이해 및 인식, 포용, 보호	평등, 내적조화, 세계평화, 자연과의 조화, 지혜, 아름다운 세상, 사회정의, 관대한, 환경을 보호하는
6. 자율(Self-direction)	자립적인 사고 및 행위	자유, 자존감, 프라이버시, 창의성,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는, 독립적인, 호기심 있는
7. 자극(Stimulation)	흥분, 신기로움, 도전	다채로운 삶, 재미있는 삶, 대법한
8. 쾌락주의(Hedonism)	본인을 위한 즐거움과 감각적인 만족	쾌락, 즐기는 삶, 방종한
9. 성취(Achievement)	사회기준에 따라 드러나는 유능함을 통한 개인적 성공	영향력있는, 야심적인, 유능한, 지적인, 성공적인
10. 권력(Power)	사회적 지위와 위신, 통제력, 또는 사람과 자원에 미치는 지배력	사회적 힘, 부, 권위, 사회적 인정, 체면을 유지하는

명해진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복수항목으로 측정된 가치 유형들은 이론개발에 더 효과적이며 좀 더 일관적으로 결과변수에 나타난 차이를 보여주고 예측할 수 있는 원인변수가 될 수 있다. 즉 각 개별 가치항목들에 대한 이해보다 개별 항목들의 구성하는 가치체계가 개인의 신념, 태도, 및 행동을 유발하는 동인에 대해 좀 더 철저한 이해를 제공해준다고 보았다. 즉,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가치의 영향은 특정한 특정 가치항목보다 한 개인의 전반적 가치체계, 즉 가치구조에 의해 좀 더 효과적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다(Kamakura & Novak, 1992).

Schwartz(1992, 1994)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57개의 대표적 가치들을 측정하는 가치질문지(Schwartz Value Survey : SVS)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유사성구조분석(similarity structure analysis : SSA)으로 분석하여 모든 사회에서 구별되어지는 10개의 핵심가치영역들을 구성하고, 각 영역을 대표하는 가치항목들을 구성하였으며(표 1), 그 가치영역들의 동기적 목표들 간의 내재된 갈등

(conflict) 또는 공존(compatibility)에 근거한 특정한 가치 구조를 제시하였다(그림 1). Schwartz의 가치이론은 발견한 10개의 가치유형 및 그들의 관계구조는 다양한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성(universality)을 가정하였다. Schwartz의 가치연구들은 지난 20여년이 넘도록 비교문화적 심리학을 넘어 사회과학 및 마케팅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져 오고 있다.

Schwartz 가치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론이 밝히는 10개의 핵심가치들 간의 역동적인 관계구조이다. Schwartz 가치이론에 따르면, 10개의 가치유형들(관련된 가치들의 중심 목적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이 원의 모양과 유사한 관계구조(quasi-circumplex structure)를 형성한다. 원형과 유사한 형태의 구조는 10개의 가치들이 양립 또는 대립의 관계를 갖거나 서로 관계가 없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앞서 확인된 가치유형들의 개념적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 Schwartz(1992)는 10개의 가치유형들사이의 역동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서 10개의 가치유

형들 사이에 존재하는 특정한 관계구조를 제안하였다. 그 구조는 사람들이 특정 가치를 추구할 때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및 심리적 갈등과 조화(일치)에서 발현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개인주의적 관심에 대응하는 가치들은 집단주의적 관심에 대응하는 가치들과 대립관계를 보여 줄 수 있으며 개인주의적 관심에 속한 가치들은 서로 양립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0개의 가치유형들은 가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2차원구조 안에서 조직되어질 수 있다. Schwartz는 유사성구조분석(similarity structure analysis : SSA)을 사용하여 두 개의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루어진 차원들을 기하학적인 공간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변화에 호의적이며 능동적인 성향을 가리키는 ‘변화에 대한 개방(Openness to change)’과 기존의 것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보수적 성향(Conservation)’의 차원과 개인의 권력과 성취를 지향하는 ‘자아증진(Self-Enhancement)’ 과 자신보다는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아초월(Self-Transcendence)’의 차원을 보여준다. 즉 ‘변화에 대한 개방 대 보수’의 차원에 의하면, 자극(Stimulation)과 자율(Self-direction)로 표현되는 가치유형들은 동조(Conformity), 전통(Tradition) 그리고 안전(Security)의 가치유형들과 대립된다. 또 “자아증진 대 자아초월”의 차원에 따르면, 권력(Power)과 성취(Achievement) 그리고 쾌락주의(Hedonism) 가치유형들이 보편주의(Universalism)

와 박애(Benevolence)가치유형들과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가치유형들 사이의 대립 또는 양립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론적 구조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쾌락주의(Hedonism)’ 가치유형은 점선으로 주위가 표시되는데 이는 쾌락주의가 “변화에 대한 개방(Openness to change)”과 “자아증진(Self-Enhancement)”이라는 두 차원의 특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대립되는 가치들은 중심으로부터 반대방향에 위치하며, 양립하는 가치들은 원형 안에서 서로 가까이 인접한다. 이러한 가치유형들 간의 대립관계로 인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에 따라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견, 신념, 태도 및 행동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19개국에서 행해진 연구들은 특정가치의 선호(priorities)와 다양한 행동, 태도 및 개성변인들의 체계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가치관계의 구조는 연구자로 하여금 자아초월에 속한 특정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아증진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특정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 및 행동 등을 보여준다고 가정할 수 있게 한다.

Schwartz는 지금까지 70개 이상의 다른 나라에서 선출된 다양한 표본 집단들로 구성된 대규모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들로부터 개인의 내재된 동기에 따라 구별되는 10개의 가치유형들과 가치들 간의 대립 및 양립관계들을 보여주는 구조를 확인하였다 (Schwartz, 1992, 2005a, 2005b; Schwartz & Boehn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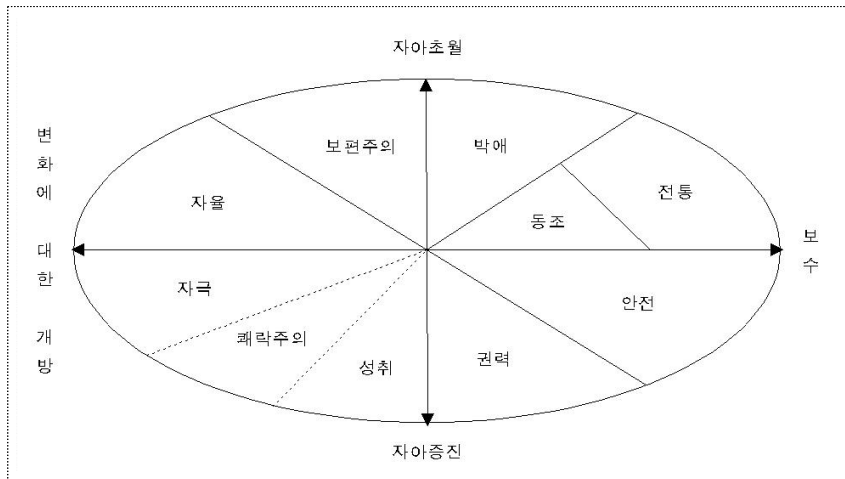


그림 1. Schwartz의 이론에서 제시된 가치영역의 구조

2004). Schwartz는 자신의 이론에 대한 견고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이론의 적용을 시도하기 위해 추구가치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차이들을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측정도구를 개발했다(Schwartz, 1992, 2005a, 2005b; Schwartz, Melech, Lehmann, Burgess, & Harris, 2001). 각 도구는 10개의 보편적 가치들과 이들 사이의 상호관계들의 구조를 다양한 문화 및 사회들 속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들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중에서 Schwartz Value Survey(SVS)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왔다.

지금까지 Schwartz와 그 외 다수의 연구자들(Schwartz, 1990; Schwartz & Bilsky, 1987; Schwartz & Bilsky, 1990; Schwartz, 1992; Schwartz & Sagiv, 1995)은 다양한 문화권간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한 조건으로 제시하였지만 서구의 여러 국가 및 문화를 초월하는 동일한 가치관의 구조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선출한 여러 나라의 표본들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연구대상자로 사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추출된 표본들을 포함한 대규모의 조사 대상자들을 사용한 연구에 기초한다. 따라서 Schwartz가 제시한 보편적 가치이론은 개별 문화권의 독립적인 표본들을 대상으로 이론의 타당성이 경험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아일랜드(Sousa & Bradley, 2002), 핀란드(Verkasalo, 1996; Koivula & Verkasalo, 2006), 그리고 아프리카(Schwartz, Melech, Lehmann, Burgess, Harris, & Owens, 2001)에서 선출된 각 나라의 표본을 대상으로 가치내용 및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연구 자료들이 이론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헌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가치이론의 보편성은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전 세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권의 나라들이 개별적으로 연구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물론 Schwartz의 가치연구를 위한 대규모 연구대상자 안에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및 홍콩에서 선출된 표본들이 일부 포함되어졌다 하더라도 각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수집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재함에 따라, 그들을 대상으로 Schwartz 가치이론의 적용여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요구되어진다. 즉 Schwartz가 제시한 보편적 가치이론의 타당성을 확인

하고 다른 문화권에 가치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태국, 일본 등 서구와 다른 문화적 차이를 가질 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가치 차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Schwartz의 가치이론에서 제시한 10개의 가치영역과 그 가치영역들의 관계구조를 한국인으로만 이루어진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하여 Schwartz의 가치이론의 적용 타당성을 확인하고 비교문화적(cross-cultural) 이해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남국(1994)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들의 연구가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문화권에서 나타난 가치영역들 간의 상호배열관계와 각 가치항목들 간의 거리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를 통해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즉, 다양한 문화권 내에서 구성원들이 갖는 가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공통된 보편적 가치구조의 공통성을 찾기 보다는 각 문화권에서 확인되는 가치구조의 차이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치 연구들을 살펴보면, Rokeach의 가치측정도구(RVS : Rokeach Value Survey)를 번안하여 그대로 적용했던 연구들(장동환, 김교현, 1983; 한덕웅, 탁진국, 1993)이었다. 그러나 비교문화적 관점을 가지로 볼 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가치연구에 있어서 어떤 한 문화권이나 나라에서 도출하여 타당화된 척도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거나 그러한 척도들을 사용하여 검증된 가치의 하위차원들을 그대로 한국인의 가치를 이해하는 준거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김철민, 1999). 또한 문화보편적으로 확인된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각 차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가치들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를 엄밀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치 연구들은 한국인의 가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역하여 수정한 후 사용하고 있는데, 이보다 앞서 다른 문화권에서 개발된 이론의 적용타당성이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Schwartz 가치이론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기존이론에서 제시한 가치내용과 구조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고 차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Schwartz의 가치이론이 보편적(universal)이며 SVS가 가치 이론측정에 타당한 도구라면 가정된 유사한 가치구조가 본 연구의 표본에게서 발견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때는 문화적 차이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개발된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하기 이전에 선행 이론의 문화적 적용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먼저 확인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가치 측정도구 개발 등 향후에 이루어 질 심화연구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구지역에 위치한 한 4년제 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되며 특히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단과대학별 전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담당교수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 후,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총 630명의 대학생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불성실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응답을 제외한 582명의 응답을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Schwartz와 Sagiv(1995)가 제안한 것처럼, -1과 7로 이루어진 9점 척도에서 3, 5 또는 6과 같은 응답들이 3회 이상 그리고 7의 응답이 2회 이상 등장하거나 무응답이 2회 이상 포함된 설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같은 응답이 너무 많은 경우, 가치의 계층을 창출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에서 제외된 응답자의 비율은 1%보다 적었다.

582명의 응답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2개의 결측 값을 제외한 총 580명 중 남학생이 318(54.8%)명이고 여학생이 262명(45.2%)으로 나타났으며 분석에 포함된 학생들의 평균나이는 22.5세(SD=2.35)였다. 또 전공별 응답자들의 빈도를 살펴보면 무응답(3명)을 제외한 총 579명은 경상대(108명), 사범대학(81명), 인문/체육대학(67명), 공과대학(64명), 법정대학(99명), 사회과학대학(62명), 조형예술대학(19명), 정보통신/재활과학대학(76명), 그리고 자연과학대학(3명)

에서 제공되는 학문을 전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Schwartz가(1994) 개발한 가치 설문지인 SVS(Schwartz Value Survey : SVS)를 역번역(back translation) 과정을 거쳐서 원어에 부합하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번역과정과 역번역과정에는 연구자와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 능숙한 이중 언어구사자 2명이 참가하였다. 가치 설문지는 총 57개의 대표적 가치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가치 항목들이 두 가지 가치 항목 리스트에 제시되었다. 즉, 첫 번째 리스트에는 이상적인 목표 상태를 명사의 형태로 기술한 30개의 가치항목들(예, 평등, 자유)이 포함되며, 두 번째 리스트에는 행위를 취하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방식을 형용사의 형태로 기술한 27개의 항목들(예, 독립적인, 헌신적인, 정직한)이 제시되었다. 설문지에서는 각 가치항목과 그 항목이 뜻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괄호 안에 함께 제공되었다. 예를 들어, “평등”(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줌), “쾌락(욕망의 충족)”과 같은 형태로 설문이 구성되었다. 본 설문지 응답을 위하여 연구대상자들에게 -1에서 7사이로 이루어진 9점 척도를 사용하여 “나의 삶을 이끄는 원칙으로서” 각 가치 항목의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 -1(본인의 추구가치와 반대된다면), 0(중요하지 않은 가치일 경우), 3(중요한 가치일 경우), 6(매우 중요한 가치일 경우), 그리고 7(최고로 중요한 가치일 경우). 연구대상자들은 두 개의 리스트에 나타난 가치 항목들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각 리스트에 포함된 모든 가치들(예, 1에서 30까지, 31에서 57까지)을 읽고 난 후 우선 본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선택하여 그 중요도를 제시한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게 한다 음 본인의 추구가치와 상반된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선택하여 ‘-1’로, 가장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에는 ‘0’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와 반대되거나 가장 덜 중요한 가치를 먼저 결정한 후 나머지 가치들을 그 중요성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다. 가치 설문지에 포함된 57개의 가치항목들과 가치항목들이 속한 가치유형에 대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Schwartz의 가치 질문지(SVS)에 포함된 가치항목과 가치유형

번호	가치항목	가치유형	번호	가치항목	가치유형
1	평등	보편주의	30	사회정의	보편주의
2	내적조화	보편주의	31	독립적인	자율
3	사회적 힘	권력	32	중용의	진통
4	즐거움	쾌락주의	33	충성스러운	박애
5	자유	자율	34	야심적인	성취
6	영적인 삶	박애	35	관대한	보편주의
7	소속감	안전	36	겸손한	진통
8	사회적 질서	안전	37	대범한	자극
9	재미있는 삶	자극	38	환경을 보호하는	보편주의
10	의미있는 삶	박애	39	영향력 있는	성취
11	공손	동조	40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하는	동조
12	부유함	권력	41	자신의 목표를 선택하는	자율
13	국가의 안전	안전	42	건강한	안전
14	자존감	자율	43	유능한	성취
15	호의에 보답	안전	44	인생에서 나의 몫을 받아들이는	진통
16	창의성	자율	45	정직한	박애
17	세계평화	보편주의	46	체면을 유지하는	권력
18	전통에 대한 공경	동조	47	순종하는	동조
19	성숙한 사랑	박애	48	지적인	성취
20	자기수양	동조	49	도움을 주는	박애
21	프라이버시	자율	50	인생을 즐기는	쾌락주의
22	가족의 안전	안전	51	헌신적인	진통
23	사회적 인정	권력	52	책임감 있는	박애
24	자연과의 조화	보편주의	53	호기심 있는	자율
25	다채로운 삶	자극	54	용서하는	박애
26	지혜	보편주의	55	성공적인	성취
27	권위	권력	56	청결한	안전
28	진실한 우정	박애	57	방종한	쾌락주의
29	아름다운 세계	보편주의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57개의 가치 항목들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중요도 평정치를 사용하여 가치 항목들에 대한 유사성 구조 분석(similarity structure analysis : SSA) (Borg & Shye, 1995; Guttman, 1968)을 실시하였다. 유사성 구조 분석은 각각의 문항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상대적 거리로 표현하여 다차원 공간상에 표시해주는 비계량적 통계 방법의 하나이다. 즉, 유사성 구조 분석은 문항들 간의 개념적 유사성이 클수록 다차원공간 상에 나타나는 두 문항 간의 거리는 좁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해 연구대상자들의 가치 구조를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먼저 모든 문항들 간의 피어슨 상관 행렬을 구성하였으며, 상관 행렬을 입력 자료로 유사성 구조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2차원 평면에 표시된 문항

들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그 후 각각 표시된 문항들이 속한 가치영역들을 확인하고 동일한 가치영역의 문항들을 선으로 이어서 가치영역을 표시하였다. 이때 가치영역의 구분을 위해서 선행 연구(Schwartz, 1992)에서 사용된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선행이론에서 제시한 가치 영역의 문항들 중에서 적어도 50% 이상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둘째, 되며, 선행이론에서 제시한 다른 가치영역의 문항들의 포함이 50%이하이다. 셋째, 두 개의 영역의 가치 문항들이 혼합되어 50%이상을 구성하고 그 외의 가치 항목들의 포함이 50%이하 일 때는 두 개의 가치영역이 통합된 영역으로 간주한다. 넷째, 이상의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영역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해당 가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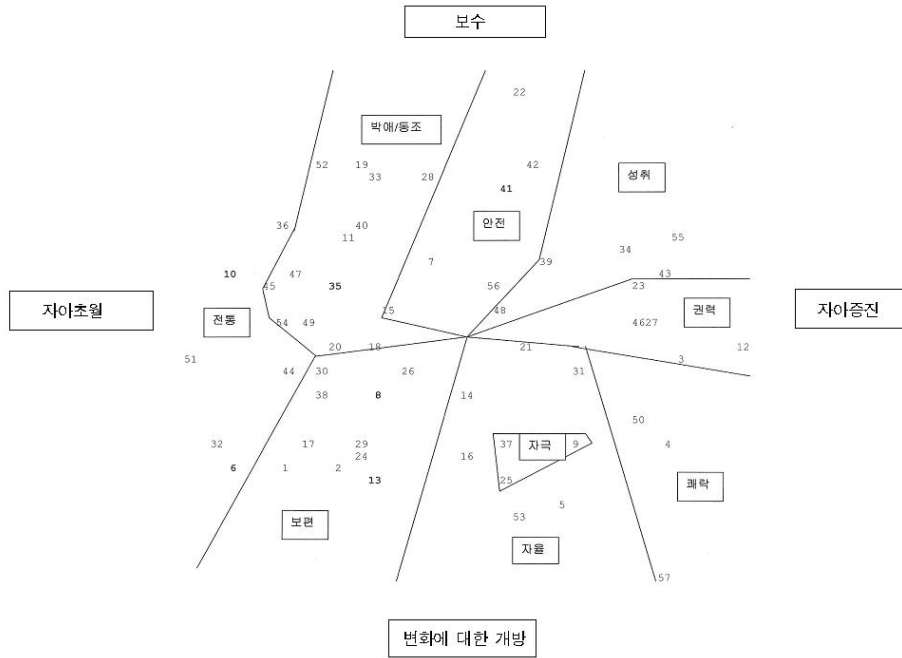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대상자의 가치구조와 영역

결 과

2차원에서 각 가치항목들의 위치와 가치유형에 기초한 구분을 표시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SSA 분석에서 차원의 수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해석가능성이다(Borg & Lingoos, 1987). 본 연구에서 SSA 분석 결과, 2차원과 3차원의 alienation 계수는 각각 .25, .3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2차원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2차원의 alienation 계수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Guttman, 1968), 지금까지의 가치이론을 경험적으로 밝힌 선행연구들이 모두 2차원 해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이론과의 비교가 가능하며, 해석의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2차원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먼저 가치이론(Schwartz, 1992, 1994)에서 제시한 10개의 가치영역의 구조 측면에서 볼 때, 선행이론에서 제시한 두 가지 가치차원 중 '자아초월 - 자아증진'의 차원이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변화에 대한 개방 - 보수' 차원의 경우 유사한 차원의 구조를 보이면 선행이론에서 제

시한 것처럼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지는 않았다. 가치영역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결과 10개의 가치영역들 중에서 8개의 가치영역이 구분되었으며, 2개의 가치영역(박애와 동조)은 통합된 가치영역으로 나타났다. 10개의 가치영역의 순서를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의 가치구조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박애'와 '전통'의 순서와 '성취'와 '권력'의 순서가 바뀌었다.

또한 선행이론에서 제시한 가치영역의 하위 가치항목의 위치를 비교할 때, 57개의 가치항목들 중에서 6개의 가치항목이 다른 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서 95% 이상이 Schwartz의 가치이론과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연구결과 확인된 가치영역과 가치항목의 구성은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가치항목들의 위치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안전', '성취', '권력', '쾌락', '자율', '자극'의 가치영역은 하위 가치항목들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가치영역에 대체로 위치하였지만, '박애', '동조', '전통', '보편주의'의 가치영역들의 하위 항목들은 선행이론에서 나타난 위치와 다

표 3. 가치영역과 가치항목 결과

	성취	17	세계평화
48	지적인	8	사회적 질서(안전)
39	영향력 있는	38	환경을 보호하는
34	야심적인	26	지혜
43	유능한	30	사회정의
55	성공적인		전통
	권력	51	헌신적인
23	사회적 안정	36	겸손한
46	체면을 유지하는	32	중용의
27	권위	10*	의미있는 삶(박애)
3	사회적 힘	6*	영적인 삶(박애)
12	부유함		박애/동조
	쾌락주의	52	책임감 있는
50	인생을 즐기는	19	성숙한 사랑
4	즐거움	33	충성스러운
57	방종한	28	진실한 우정
	자극	40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하는
37	대범한	11	공손
25	다채로운 삶	47	순종하는
9	재미있는 삶	45	정직한
	자율	35*	관대한(보편주의)
21	프라이버시	54	용서하는
31	독립적인	49	도움을 주는
14	자존감	20	자기수양
16	창의성	18	전통을 따름
53	호기심 있는		안전
5	자유	22	가족의 안전
	보편주의	42	건강한
1	평등	41*	자신의 목표를 선택하는(자율)
2	내적조화	7	소속감
13*	국가의 안전(안전)	15	호의에 보답
24	자연과의 조화	56	청결한
29	아름다운 세계		

*선행이론에서 제시한 영역과 다른 영역에 나타난 항목

소 다르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가치영역에 속하는 하위 항목들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의미있는 삶’(10)과 ‘영적인 삶’(6) 항목이 선행이론에서는 ‘박애’ 영역에 포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통’에 포함되었다. ‘관대

한’(35)은 선행이론에서는 ‘보편주의’에 속하는 가치항목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박애/동조’에 포함되었다. ‘사회질서’(8)와 ‘국가의 안전’(13)은 선행연구에서는 ‘동조’의 가치영역에 포함되는 항목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편주의’에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표를 선택하는’(41)은 선행이론에서는 ‘자율’ 영역에 포함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안전’ 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Schwartz가(1994) 개발한 보편적 가치이론이 한국 문화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인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하고 가치 설문지인 SVS(Schwartz Value Survey : SVS)를 사용하여 가치구조의 차원과 내용을 분석하여 선행이론에서 제시한 이론의 구조와 내용이 실제로 연구대상자의 인식에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선행이론과 경험적 연구의 결과 간 차이점을 비교하여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가치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Schwartz 이론의 국내 적용 타당성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들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자아증진-자아초월 차원에서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결과로 도출된 가치영역들의 구조에서 선행이론이 제시한 자아증진 차원(자율, 자극, 쾌락, 권력, 성취, 안전)은 오른쪽에, 그리고 자아초월 차원(보편주의, 전통, 박애/동조)은 왼쪽에 근접하게 위치하여 전체적인 가치구조에서 자아증진 - 자아초월의 차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개방 - 보수’로 구분되는 차원은 확인이 가능하였지만 ‘자아증진-자아초월’의 차원처럼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는 그림 2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선행이론과 달리 ‘권력’과 ‘성취’의 위치가 바뀌면서 ‘권력’이 변화에 대한 개방 차원에 위치하고 ‘성취’가 보수 차원에 인접하게 나타났으며 ‘전통’과 ‘박애’의 위치 역시 바뀐 상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개방 - 보수’의 차원이 본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자아증진 대 자아초월’의 차원 만큼 분명하게 구분되어 인식되는 차원이 아닐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할 때, 조사된

한국 대학생들의 가치내용은 자아증진의 측면과 자아초월의 측면에서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다. 연구의 결과로 확인된 가치 인식에 있어서의 자아증진-자아초월 차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인의 대표가치요소들을 추출한 김철민(1996)의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다. 김철민(1996)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면접을 실시하여 한국인의 대표가치요소들을 추출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가치관의 하위 영역을 설정하여 가치관 척도를 제작하였다. 한국인의 가치척도는 생활방식에 관한 가치관과 목적 상태에 대한 가치관으로 구분되며, 생활방식에 대한 가치관은 절제성과 활동성으로 구성되며, 목적 상태에 관한 가치관은 가족지향성, 개인지향성, 사회지향성, 물질지향성으로 구성된다. 두 가지 가치관에 포함된 하위요소들을 살펴볼 때, 절제성, 가족지향성, 사회지향성은 자아초월 차원과 유사하며 활동성, 개인지향성, 물질지향성은 자아증진 차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김철민(1999)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비교 문화 연구에서 문화 보편적으로 검증된 이론의 하위 차원들을 준거 틀로 삼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권에서 제시된 각 차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가치들에 대한 문화적인 의미 차이를 엄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행이론에서 제시한 가치영역의 의미가 본 연구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 결과에 근거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가치의 구조차원으로부터 살펴볼 때, 자아증진 차원의 하위 가치영역은 선행연구에서 구분했던 의미와 유사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자아초월 차원의 하위 가치영역에 대한 이해는 선행이론에서의 이해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가치영역의 구조를 살펴볼 때, 선행이론에서 제시한 10개의 가치영역들 중에서 8개의 가치영역이 독립된 가치영역으로 나타났으며, 두 개의 영역(박애와 동조)은 구별된 가치영역이 아닌 통합된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통' 영역에 '박애' 영역의 하위 가치 항목들이 다소 포함되는 것을 볼 때 자아초월 차원에서 나타나는 '전통', '박애', '동조'의 가치영역은 조사대상자들에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가치영역이기 보다는 유사한 가치영역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아초월 차원에 포함되는 가치영역들은

선행이론에서 제시한 구조배열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위에서 언급한 '전통'과 '박애'의 상호배열순서 차이와 '박애'와 '동조'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가치 영역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애'와 '동조' 가치 영역은 원만한 대인관계 증진을 위해 요구되는 규범적 행동을 따르는 가치들을 강조한다. 따라서 선행이론에서는 '전통'과 '동조'가 결합되어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대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측면에서의 가치가 강조되는 반면, '박애'와 '동조'가 결합된 가치 영역은 원만한 대인관계 증진을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이나 규범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원만한 대인관계 증진이 동조의 핵심적 욕구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박애' 영역이 선행연구와 달리 '안전'과 인접한 영역에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가족이나 친구 등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개인에게는 비록 제한이 가해지더라도 대인관계의 원만한 형성을 강조하는 가치영역이 다른 어떤 가치들보다 더 개인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Schwartz의 이론에서 제시한 박애의 개념은 한국의 문화에서는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박애는 보통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데, 서구에서 의미하는 타인의 범주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동양에서 의미하는 타인의 범주와 다를 것으로 여겨져 왔다. 즉 동양에서는 나 외의 타인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강하며 내집단을 자신과 자주 접촉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 친구들로 한정하고 그들을 자아와 동일시하며 그들의 안전과 복지에 관심이 크다. 반면 외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에是无관심한 경향이 있다. 반면 개인주의가 강한 서양에서는 오히려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타인의 범위는 동양의 그것보다 더 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Trandis, 1990; Trandis, McCusker, & Hui, 1990)

따라서 똑같이 박애를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평가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추구가치들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Kim, Helgeser, & Ahn, 2002). Kim(2002) 등은 서구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박애의 동기적 요소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대학생의 이념적 집단주의와 개인주

의를 분석한 논의에서도 제시되었는데, 이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대학생들이 보이는 집단주의적 행위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개인주의적 동기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최상진, 2000).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조남국(1994)은 한국 문화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은 집단주의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중시됨으로써 보상기능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려가 “우리”라는 내집단에서만 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서구의 문화에서 박애의 의미는 개인이 속한 내집단을 초월하여 외집단으로까지 확대되어 이해되지만, 한국인의 경우 타인에 대한 범위가 서구 문화권과 달리 이해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박애의 의미는 보다 자신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이해될 수 있겠다.

박애의 가치영역이 서구 이론에서의 의미와 달리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은 몇 가지 항목이 선행이론과 하위 가치영역에 위치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회질서’(8)와 ‘국가의 안전’(13)은 선행이론에서는 ‘안전’의 가치영역에 포함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보편주의’에 포함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안전’의 가치영역은 개인의 안전에 초점을 둔 가치영역과 집단이나 사회적 안전에 초점을 둔 가치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국 대학생표본들은 이 두 가지 초점을 구분하여 개인의 안전에 초점을 둔 가치항목들을 ‘안전’의 가치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후자인 집단이나 사회적 안전에 초점을 둔 가치항목들(사회질서와 국가의 안전)은 ‘보편주의’ 가치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보편주의’ 가치영역의 경우 사회적 관심과 자연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사회질서’와 ‘국가의 안전’은 개인적 안전과 구분되는 사회적 관심을 대표하는 가치영역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할 때, 서양의 문화권에서 이해하는 ‘자아증진’과 ‘자아초월’에서 ‘자아’의 의미가 한국 문화에서 달리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문화에서 ‘자아’는 가족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 확대되어 확장된 자아, 즉 ‘우리’로 이해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구조에 대한 이해는 한국문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유교의 영향을 이해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로 확인될 수 있다. 특히 유교는 한국 문화에 집단주의적 경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유교의 가르침은 한국문화에서 중요한 가치영역으로 자리잡아왔다(이수원, 1995). 즉, 유학의 ‘인’을 실천함으로써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이루는 것을 강조한 전통적인 유교사상은 자아에 대한 인식을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로 확대시켰으며, 공동체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 요구되는 가치영역, 즉 ‘박애’와 ‘동조’는 개인의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욕구와 밀접하게 관계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박애’와 ‘동조’는 불교와 유교 등에서 유래된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일관되기 때문에 ‘전통’의 가치영역은 ‘박애’와 ‘동조’를 포함하는 하나의 보다 추상적인 가치영역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선행이론과 다르게 분포한 몇 가지 하위 가치항목들을 살펴보면, ‘관대한’(35)과 ‘자신의 목표를 선택하는’(41)이 선행이론과 다른 영역에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 가치항목의 불일치는 가치항목의 해석상의 차이로 이해된다. ‘관대한(broadminded)’(35)의 경우 선행이론에서는 개인의 관심을 초월하여 편견 없이 세상을 이해한다는 의미인 반면,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타인에 대한 관대함으로 해석하여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가치항목인 ‘자신의 목표를 선택하는’(41)의 경우, 선행이론에서는 ‘자율’의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자율’의 가치영역에 속하지만 본 연구대상자들인 대학생들에게 진로를 포함한 목표를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삶의 목표를 선택하는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두어 인식하고 이러한 행동적 특성이 개인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이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SSA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실제로 한국 대학생표본들을 대상으로 측정된 가치영역과 하위 가치항목들의 위치를 분석하여 Schwartz가 제시한 보편적 가치 이론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할 때, Schwartz의 가치이론에서 제시된 10개의 가치영역과 하위 가치항목들이 조사 대상자들의 가치 인식구조에서 확인되어 선행이론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지만, 각 가치영역들의 상호배열관계와 각 가치영역들에 포함된 하위 항목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할 때 문

화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조남국(1994)이 지적한 바처럼, Schwartz의 가치이론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가치구조의 중심점들만을 기초로 한 개략적인 가치구조의 동질성에만 초점을 두어 모든 문화권에 적용 가능한 타당한 보편적 가치이론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다양한 국가, 민족, 사회 및 문화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러한 차이에 대한 비교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토대로서 활용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연구대상의 표집이 특정 지역의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 학생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문화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연구대상자들이 갖는 그 문화에 대한 대표성이 높을 때 그 연구의 외적 타당도가 높아질 수 있다(이종한,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한국인의 가치에 대한 구조와 내용은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연령층, 사회계층,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보다 더 일반화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Schwartz가(1994) 개발한 가치 설문지인 SVS(Schwartz Value Survey : SVS)를 역번역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SVS 문항들이 특정 상황이나 행동에 기초해 기술되기 보다는 추상적 개념들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의 추상적 사고 능력을 요구하며 응답자들의 추상적 사고 능력이 제한될 경우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기존 Schwartz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한계로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한계에 따라 특정상황 기술형 설문지인 Portrait Values Questionnaire(PVQ)이 추가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국내의 연구에서도 두 가지 형태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향후 연구결과를 통해 측정도구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다 타당한 측정도구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SSA 분석 결과 2차원의 alienation 계수는 .25로 일반적인 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해석의 용이성을 우선으로 한 분석결과이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 염두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데, 이는 지금까지 다양한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

제시된 가치이론의 보편성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가치이론의 적용가능성과 문화적 차이를 밝히고 더 나아가 가치이론의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개인의 가치이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가치이론의 개발이 확대되고, 이들 연구들을 통해 확립된 가치이론은 다양한 심리학적 적용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철민 (1999). 가치관 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개념 정의, 가치요소의 측정방법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6, 53-78.
- 윤진, 최상진 (1994). *Psychology of the Korean people :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Dong-A Publishing Co.
- 이수원 (1995).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넘어서 : “문화와 인지 : 타인 이해의 연구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한국심리학회 동계 심포지움 :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 188-195. 서울 : 한국심리학회.
- 장동환, 김교현 (1983). 신입생의 가치관 조사.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도연구, 5, 3-32.
- 조남국 (1994). Schwartz와 Bilsky의 보편적 가치구조 이론에 대한 방법적 비판 : SSA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8(2), 55-69.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부.
- 한덕웅, 탁진국 (1993). 대학생의 가치관 변화 : Rokeach 척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학생상담실. 학생지도연구, 10(1), 171-182.
- Borg, I., & Groenen, P. (1997). *Modern multidimensional scaling : Theory and application*. New York : Springer-Verlag.
- Borg, I., & Shye, S. (1995). *Facet theory : Form and content*. London : Sage.
- Braithwaite, V. A., & Law, H. G. (1985). Structure of human values : Testing the adequacy of the Rokeach Value Surve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250-263.

- Crosby, L. A., Bitner, M. J., & Gill, J. D. (1990). Organizational structure of valu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0, 123-134.
- Guttman, L. (1968). A general nonmetric technique for finding the smallest coordinate space for a configuration of points. *Psychometrika*, 33, 469-506.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ey Hills, CA : Sage.
- Kahle, L. R., Beatty, S. E., & Homer, P. (1986). Alternative measurement approaches to consumer values : The List of Values(LOV) and values and Life style(VAL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3, 405-409.
- Kamakura, W. A., & Novak, T. P. (1992). Value system segmentation : Exploring the meaning of LOV.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119-132.
- Kim, U. C., Helgeser, G., & Ahn, B. M. (2002). Democracy, trust, and political efficacy : Comparative analysis of Danish and Korean political culture. *Applied Psych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51 (2), 318-358.
- Kluckhohn, C. (1951). Values and value-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 An exploration in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In T. Parsons & E. Shils(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pp.388-433).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Kluckhohn, F., & Strodtbeck, F. (1961).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s*. Evanston, Row Peterson.
- Koivula, N., & Verkasalo, M. (2006). Value structure among students and steelwork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5), 1263-1273.
- Kruskal, J. B., & Wish, M. (1978). *Multidimensional scaling*. Beverly Hills, CA : Sage.
- Maloney, J., & Katz, G. M. (1976). Value structures and orientations to social institutions. *Journal of Psychology*, 93, 203-211.
- Parsons, T., & Shils, E. A. (1951).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Y : Free Press.
- Schwartz, S. H. (1990). Individualism-collectivism : Critique and proposed refinem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 139-157.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5, pp.1-65). New York : Academic Press.
- Schwartz, S. H. (1994). Are there universal aspect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human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4), 19-45.
- Schwartz, S. H. (2004). Mapping and interpreting cultural differences around the world. In H. Vinken, J. Soeters, & P. Ester(Eds.), *Comparing cultures : Dimensions of cultur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pp.43-73). Leiden, the Netherlands : Brill.
- Schwartz, S. H. (2005a). Basic human values : Their content and structure across countries. In A. Tamayo & J. B. Porto(Eds.), *Valores e comportamento nas organizações [Values and behavior in organizations]* (pp.21-55). Petrópolis, Brazil : Vozes.
- Schwartz, S. H. (2005b). Robustness and fruitfulness of a theory of universals in individual human values. In A. Tamayo & J. B. Porto(Eds.), *Valores e comportamento nas organizações[Values and behavior in organizations]*(pp.56-95). Petrópolis, Brazil : Vozes.
- Schwartz, S. H., & Bilsky, W. (1987). Toward a universal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550-562.
- Schwartz, S. H., & Bilsky, W. (1990).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78-891.
- Schwartz, S. H., & Boehnke, K. (2004). Evaluating the structure of human values with confirmatory factor

-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8, 230-255.
- Schwartz, S. H., Melech, G., Lehmann, A., Burgess, S., & Harris, M. (2001). Extending the cross-cultural validity of the theory of basic human values with a different method of measure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 519-542.
- Schwartz, S. H., & Sagiv, L. (1995). Identifying culture-specific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1), 99-116.
- Sousa, C. M., & Bradley, F. (2002). An assessment of value structure and content in Ireland. *Irish Journal of Management*, 23(1), 109-123.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Berman(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pp.41-133). Londo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 C., McCusker, C., & Hui, C. H. (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06-1020.
- Verkasalo, M. (1996). Values : Desired or desirable? (*Research Reports* No.17). Helsinki, Finland : University of Helsinki, Department of Psychology.

Extending the Validity of the Schwartz's Universal Value Theory : The Case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Yeonshin Kim

Myongji University

Hanna Choi

Sungsan Hyo Graduate School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the validity of Schwartz's value theory to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employed the 57-item Schwartz Value Survey (SVS; Schwartz, 1994) and conducted similarity structure analysis to examine the value structure and content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n=582). The results indicated a consistency with the theoretical model proposed by Schwartz. The value structure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were similar to Schwartz' theoretical model with several variations. Eight out of 10 value domains were identified as discrete and 2 value domains (Benevolence and Conformity) were combined. Fifty-one out of 57 values emerged in the postulated locations. Implications for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values were discussed.

Keywords: Schwartz's value theory; Similarity structure analysis; Value structure; Value content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10월 9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12월 15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1월 8일

부록 1. Schwartz의 가치 질문지(SVS)에 대한 SSA분석 2차원 결과 좌표값 (n = 580)

문항 번호	Item coeff. of Alienation	1차원	2차원	문항 번호	Item coeff. of Alienation	1차원	2차원
1	.28585	16.89	18.02	30	.20343	23.60	36.36
2	.31810	25.39	17.80	31	.28262	72.25	34.55
3	.22386	90.23	36.41	32	.28553	3.67	21.07
4	.25505	85.13	21.89	33	.37267	40.37	66.51
5	.29812	66.39	12.17	34	.24999	78.04	54.81
6	.20106	5.98	18.12	35	.27903	25.71	48.66
7	.37222	42.99	51.73	36	.18868	15.88	57.68
8	.27090	32.42	29.94	37	.38018	57.92	21.79
9	.30754	70.13	22.50	38	.23617	24.86	29.91
10	.32254	8.07	50.38	39	.30809	64.34	52.80
11	.28396	28.95	56.20	40	.25960	32.13	58.76
12	.16772	100.00	38.61	41	.37539	58.07	63.23
13	.29595	34.10	16.68	42	.31793	62.64	68.00
14	.28734	49.53	30.43	43	.18606	85.53	49.74
15	.29997	36.23	43.77	44	.31056	21.16	33.79
16	.22893	49.08	20.29	45	.18113	15.44	47.68
17	.18375	20.95	22.98	46	.31000	80.26	41.49
18	.27766	30.36	32.24	47	.28417	18.03	49.54
19	.34031	30.14	67.43	48	.37319	55.64	43.72
20	.26091	26.27	38.93	49	.20784	20.52	42.53
21	.27847	60.18	38.99	50	.23939	81.82	25.91
22	.27446	59.74	79.95	51	.20682	.00	36.68
23	.19137	80.59	48.16	52	.24242	23.68	67.03
24	.20721	30.86	19.45	53	.26173	58.86	10.39
25	.27041	57.40	15.47	54	.19964	16.53	42.01
26	.36368	41.12	33.28	55	.17578	87.79	55.79
27	.23355	82.79	42.03	56	.29142	60.35	48.19
28	.29899	51.08	66.03	57	.18898	86.53	.00
29	.22088	30.56	22.36				